

지역자원 활용 거점시설 운영 모델 발굴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동완산동 새들마을 거점시설 시범운영 프로그램 참여단체 모집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소영식)는 동완산동 새들마을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026 동완산동 새들마을 거점시설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및 청년조직·단체이며, 총 2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동완산동 새들마을 거점시설 4층 카페 운영과 3층 공간을 활용한 자율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게 된다.

또한 선정 단체에는 시범 운영비와 홍보·마케팅비가 지원되며, 시범 운영 기간 거점시설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카페 운영에 필요한 최소장비를 지원해 참여단체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들이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실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인 '요리조리 푸드 챌린지'를 운영했다.

함께 요리하며 배우는 존중·배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요리조리 푸드 챌린지' 운영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봉)는 아동·청소년들이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실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인 '요리조리 푸드 챌린지'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요리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31일 소망지역아동센터와 3일 평화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참여 아동들은 서로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후, 의견을 나누어 팀명을 정하고 요리 활동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 이

어 롤샌드위치와 과일꼬치를 만들며 응원과 칭찬의 말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했다.

심기봉 센터장은 "존중과 배려는 말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직접 표현하고 실천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배려의 언어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체험형 성교육과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관리 강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

전주시는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단장인 윤동욱 전주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체납관리단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계획 보고 △개인정보 보호 및 청렴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10개 부서에 18명이 배치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전주시는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과 납부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상담과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독촉이 아닌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조직"이라며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등 체납 유형에 맞는 대응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해설과 함께하는 한여름밤 어린이 음악회

전주시립교향악단, 'Summer 뮤직 어드벤처' 7일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해설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어린이음악회인 'Summer 뮤직 어드벤처'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역 청년 음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동행프로젝트Ⅲ'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가들이 교향악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시립교향악단은 또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이 클래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과 함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으로 구성해 음악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제18번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비롯해 생상의 '죽음의 무도', '동물의 사육제' 등 클래식 명곡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5000원이며, 입장권은 나뉘어져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동절기 복지안전망 구축 결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서 우수 지자체 선정

전주시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2026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난 겨울철(2025년 11월~2026년 3월) 동안 총출한 동절기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민·관 협력 지원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는 등유·연탄을 사용하는 난방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난방 위기 1757가구에 연탄과 등유를 지원하는 '온(溫)기 가득 에너지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또, 전복지방우정청과의 협업을 통해 집배원이 독거

노인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따뜻한 안부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섰다.

또한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자원 발굴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전주시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162.3% 증가한 총 15억6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다.

아울러 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0여 명과 함께한 팔초 나눔 행사와 기부자 감사 서한문 정례 발송 등 지속 가능한 나눔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유지해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드림쿠킹클래스 운영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돌봄사각지대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요리체험 프로그램인 '드림쿠킹클래스'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드림쿠킹클래스는 아동들이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다루며 오감을 발달시키고 성취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양육자에게는 일상적인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서적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조순가정과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양육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7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만성동에 위치한 키키봄에서 운영된다.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도넛과 소시지빵 만들기(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아동) △피자·떡볶이와



취향시에 만들기(취학아동) △계절과 일 케이크 만들기(양육자) 시간으로 운영된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자연

전주매일 캠페인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0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펴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펴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